

KIST 설립과 어느 외국인과의 인연

글 | 박항래 _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실장 hrpark@kist.re.kr

올해 2월 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설립 4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 나라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오늘날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의 모태는 1960년대에 국가적인 의지 하에 출범한 KIST 설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화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경제를 견인할 독창적인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KIST의 설립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맺어진 벽안의 과학자와의 인연을 소개한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과학기술연구소 설치방안' 마련

KIST 설립논의는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존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이유는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했다. 정상회담 후 의제 중 하나로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해 한국의 공업기술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언급한 공동설명이 발표되었고, 공동성명에 따라 우리 나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은 연구소의 기본성격과 미국의 지원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연구소 설치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존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담당 특별고문인 호니그 박사를 단장으로 토마스 바텔연구소 소장 등 6명으로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1965년 7월에 2주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KIST 설립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존슨 대통령에게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산업기술과 응용연구를 위한 한국의 연구소 설립에 미국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둘째, 국제개발처(AID)는 동 연구소 설립에 협조하며, 셋째, AID는 연구소 설립을 지원할 미국의 위탁기관과 사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수행할 위탁기관으로 바텔기념연구소가 선정되었다. 당시 바텔은 미국 내에서 레바논, 독일, 스위스 등 해외에 운영기법 이전 경험을 가진 유일한 연구기관이었다.

바텔은 1929년 설립된 세계적인 비영리연구기관으로 2만 명 이상의 인력과 연간 30억 달러의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정부 에너지성 산하의 5개 연구소를 위탁받아 공동운영하고 있고, 100여 지역에 특수시설,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KIST 설립 지원 위해 슬로터 박사 한국 파견

바텔의 소장 토마스는 슬로터 박사(부소장 겸 재무담당관)에게 KIST 설립을 위한 기술조사를 지시하였다. 여기서 슬로터 박사와 KIST의 인연이 시작된다. 그는 후에 자서록인 '두 문화 이야기'에서 "1965년 7월 토머스 소장이 콜럼버스의 본부로 복귀하자마자 호출해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라고 물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토머스 박사는 바텔이 한국 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기술조사를 요청 받을 것 같으니 우리 팀을 한국으로 인솔하라고 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바텔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KIST이사회에 슬로터(부소장) 박사를 바텔측 대표이사로 참석하게 했고, 이는 계약이 종료된 1971년 이후 5년간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슬로터 박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바텔조사단은 1965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AID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첫째, 바텔은 비영리 법인 형태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동 연구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입법부와 협력하고, 둘째 바텔은 연구소의 발전방안을 확인하고 충원된 한국 연구원 및 직원을 훈련시키며, 셋째 최초 5년간의 자본투자과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하에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법'이 제정되어 기관이 설립되었고, 최형섭 박사가 초대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슬로터는 자서전에서 "그를 임명한 것은 기술관련 전문성, 강력한 추진력, 리더십에 근거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최 박사 임명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고, 임명 후 수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증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1970년까지 바텔의 인력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KIST에 대한 경영, 관리,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주요 사항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출신 과학기술자의 충원, 직원의 훈련, 연구관리기법, 연구소 건설, 연구장비 조달 등이었다. 특히 연구원 충원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당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800명의 과학자를 바텔과 미국정부 협조로 발굴하고 개인면담 등을 통해 3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렇게 귀국한 과학자들에게는 많지 않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상당부분 작용하였다.



슬로터 박사는 KIST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공로로 1976년 3월 최규하 국무총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훈장(동백장)을 서훈받았다.

또한 바텔은 연구소 건설을 LA에 소재한 ACMC사라는 회사가 대행토록 하였다. ACMC사는 미국 사무소에서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서울에 상주직원을 배치하였다. 연구소 건설은 1966년 10월 시작되어 준공까지 만 3년이 소요되었으며, 박 대통령이 곁에 현황차트를 두고 챙길 정도였다. 또한 대통령 특명으로 발족된 육군 공사조정통제단의 지원에 힘입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며, 1969년 10월 23일 마침내 완공되어 화려한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바텔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KIST이사회에 슬로터(부소장) 박사를 바텔측 대표이사로 참석하게 했고, 이는 계약이 종료된 1980년까지 계속되었다.



KIST의 금동화 원장은 지난해 8월 미국출장 시 바텔연구소를 방문하여 설립 시 지원에 감사하고,故 슬로터 박사의 막내아들 빌 슬로터 씨를 만나 KIST 임직원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계속된 인연과 40년 만의 보은 방문

슬로터 박사는 이후에 미국에서 KIST가 시대적 상황변화 속에서도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1994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4회에 걸쳐 일정액을 '최형섭 기념 연구동 및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이 기부금은 거액은 아니지만 KIST 설립시 참여한 외국인사가 애정을 가지고 매년 기부하였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것이다.

슬로터 박사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태생으로 1912년 11월에 태어나 2006년 6월 5일 별세하였다. 그는 화학공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취득하였으며, 졸업 후 동문활동에 적극적이어서 대학으로부터 탁월한 동문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1936년부터 1977년 부소장겸 재무담당관으로 은퇴할 때까지 바텔연구소에서 일하였다. 특히 KIST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공로로 1976년 3월 최규하 국무총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훈장(동백장)을 서훈받았다.

KIST의 금동화 원장은 지난해 8월 미국출장 시 바텔연구소를 방문하여 설립 시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슬로터 박사의 애정 어린 성원에 대한 고마움과 별세소식을 뒤늦게 접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다행히故 슬로터 박사의 자제와 연락이 되어 막내아들 빌 슬로터 씨를 만나 KIST 임직원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빌 슬로터는 고인이 생전에 KIST의 설립 및 운영에 미친 업적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8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바텔연구소가 나이 40세쯤 KIST를 탄생시켰고, 그때 태어난 KIST는 이제 40세를 훌쩍 뛰어넘었다. 오늘의 KIST가 있도록 초기에 밑알을 뿌리고 가꾼 슬로터 박사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함께 명복을 빌며, KIST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계속 창출하여 세계적인 연구소로 도약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길 기대한다. ㉮



글쓴이는 KIST 기획예산팀장, 학연실장 등을 거쳤다.